

신안군, 해상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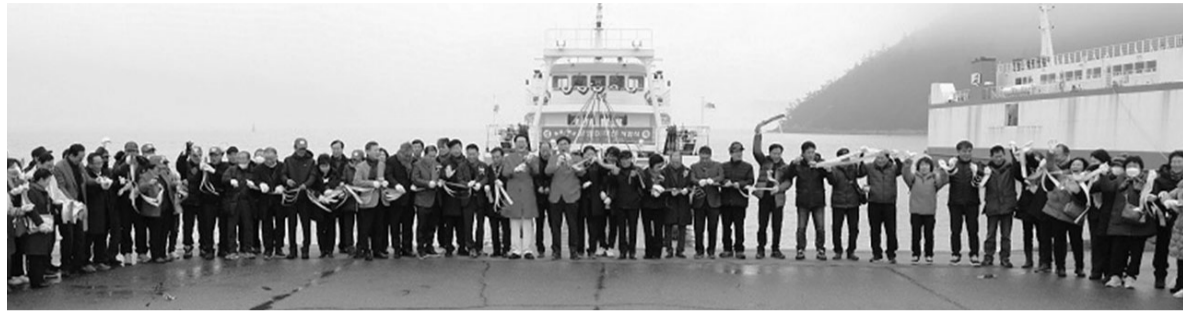
'송공-병풍도' 5호 공영여객선 취항 167톤급 차도선 정원 39명 늘어나 지역주민 외 관광객 차량 입도 금지 민간선사 운항시간 지연 민원 해소

신안군이 군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다섯 번째 공영여객선을 취항했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압해 송공항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김길동 신안군수협장 등 내·외빈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섯 번째 공영여객선 취항식을 가졌다.

이번에 취항한 여객선은 압해 송공과 증도 병풍도를 오가게 된다. 신안군이 지난 2016년 증도와 자은도를 잇는 공영여객선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 공영여객선 운항을 시작한 것.

신안군이 민간 선사에서 운영하던 항로를 인수해 공영여객선 항로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 민간 선사에서 운영하면서 운항시간의 지연, 승선객들에 대한 친절도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편 민원에 대한을 마련 하기 위함이다.



신안군은 지난 12일 압해 송공항에서 다섯 번째 공영여객선을 취항했다.

신안군 제공

이번에 취항식을 가진 선박은 슬로시티 5호로 167톤급 차도선이며 정원은 184명으로 민간 선사에서 운영했던 승선 정원보다 39명이 늘어났다.

주요 운항구간은 압해 송공과 증도 병풍도를 기점으로 당사도, 소악도, 매화도, 기점도 등을 경유한다.

여객운임은 도서민 1000원, 일반인은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완화했다.

차량은 도서민 소유로 등록된 승용차와 1톤 미만 차량은 2000원에 이용 가능해 민간 선사에서 이용했던 금액의 5분의 1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신안군은 병풍도를 지역주민 차량외에는 입도를 금지

해 '관광객 차량없는 섬'으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관광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항시간과 육상교통 운행시간대를 연계해 자신의 차량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미 신안군은 버스 완전공영제가 자리잡아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됐다. 해상교통도 지속적으로 공영제 항로를 늘려 주민들의 운임 부담이 줄고 한섬 한섬 이동권이 보장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이 높아가고 있다"며 "해상 교통도 완전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접수 올해 '깨' 추가...일부 단가 인상

해남군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 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동계작물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눈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기타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밀을 재배하면 100만원, 여름철에 옥수수·깨는 100만원, 두류·가루쌀은 200만원, 조사료는 5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는 하계작물에 깨가 신규로 추가됐고 밀이 ha당(3000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조사료는 ha당(3000평)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접수 방법은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11-12월에 지급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금의 품목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식량지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1004점 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신안군, 내달 14일까지

신안군은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 1004점농업대학 신입생을 오는 3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대학은 2개 과정(정원산업, 귀농귀촌)에 총 6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2개 과정을 동시에 운영한다.

정원산업과정은 신안군 1심1정원화 정책에 맞춘 묘목생산 관리 기술교육으로 실습 위주의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귀농귀촌과정은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및 마케팅, 창업 등 실제 농촌 정착에 필요한 현실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신안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jares.shin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경영교육팀(061-240-4121) 또는 각 읍면지소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ymc38317@korea.kr)로 보내면 된다. 우편 접수는 3월14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되며 선발된 교육 대상자에게는 3월19일 개별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 지도읍 삼암봉 '정상석' 설치 등산객 편의 제공·관광 활성화

신안군 지도읍에 위치한 삼암봉(三岩峰)에 정상석이 새롭게 설치됐다.

신안군 지도읍은 정월 대보름인 지난 12일 삼암봉 정상에 표석을 세우고 주변 잡목을 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상석 설치하는 주민들의 요청과 등산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추진됐다.

삼암봉은 지도읍 사무소에서 점암마을까지 뻗어 있으며 완만한 경사에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정상에서는 지도읍의 들녘과 임자도, 증도, 자은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다는게 지도읍의 설명이다.

지도읍 관계자는 "삼암봉은 수려한 경관으로 신안군을 대표하는 등산코스 중 하나"라며 "정상석 설치로 더 많은 등산객이 찾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18일 영암군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나박김치를 집적 담고 있다. 만들어진 김치는 관내 장애인 세대 등 47가구에 전달됐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외이웃 반찬나눔

영암군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남두·전의홍)가 18일 지역특화사업인 '사랑의 반찬나눔' 활동에 나섰다.

영암군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 47가구에 위원들이 집적 담고 나박김치 등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전의홍 영암읍지사협 민간위원장은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반찬을 담아주려는 위원들의 마음까지 전달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무안군,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사전 예방 약제 방제 요령 등

무안군은 지난 14일 관내 사과·배 경작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자가 예방 및 사전방제(궤양 제거) 요령에 대해 중점 진행됐으며 사전 예방을 위해 병 감별과 약제 방제, 농업인 준수사항 등의 설명이 추가로 진행됐다.

무안군을 비롯한 전남과 경남지역은 화상병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경기도 및 경북, 강원도에 신규 발생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병해충(금지병해충)으로 사과, 배 등의 꽃이나 잎, 줄기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해 불여진 명칭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화상병은 발병 시 과원 전체에 급속도로 확산,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쉽다"며 "과수화상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정결한 과원 관리, 작업도구 소독, 출입자 관리 등을 철저히 예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34개 확대

골절·화상 수술비 등 추가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 보험' 보장 범위를 넓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민 안전 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인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 재난 사망·후유 장애·진단 위로금 △의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망·상해 후유 장애 △

24시간 상해 사망·후유 장애 △골절, 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실버존 교통 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후유 장애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애 등 총 34개 항목이다.

올해는 지난해 29개 항목에서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등이 추가됐다.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부터 3년 이내

에 보험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군민들이 '군민 안전 보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마을 순회 방문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른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